

어린이 독자의 도서선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ildren's Book Selection Behavior

정진수(Jin-Soo Chung)**

목 차

- | | |
|-----------------|--------------------|
| 1. 서론 | 3.3 자료수집 방법과 분석 |
| 1.1 연구의 필요성 | 3.4 연구의 제한점 |
| 1.2 연구의 목적 | 4. 연구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4.1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인식 |
| 2.1 선행연구 | 4.2 도서 선택 행위 |
| 2.2 '독서'와 '어린이' | 4.3 도서 선택의 영향 요인 |
| 3. 연구방법 | 5. 결론 및 토론 |
| 3.1 자료수집 장소 | 6. 감사의 글 |
| 3.2 연구 참여자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들의 독서를 위한 공간으로서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도서선택행위를 살펴봄으로써 어린이들의 일상적인 독서를 이해하고자함에 있다.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2010년 여름방학 기간 중 10세부터 13세까지의 초등학생 32명을 대상으로 두 곳의 도서관에서 인터뷰를 실시하고 QSR NVivo 9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들은 독서하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독서를 유익한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셋째, 어린이들은 읽을 책을 스스로 선택하였다. 넷째, 도서 선택을 위한 접근 방식으로 브라우즈와 목록이용이 있었다. 다섯째, 어린이들은 도서 선택 시 '재미있는' 책과 자신들에게 '맞는' 책을 특히 강조하였다. 여섯째, 선택을 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서명, 책표지 디자인과 삽화, 도서의 접근성, 선택되는 도서의 장르/주제 분야, 표현 방식,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 출판사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understand how children age 10-13 select books in libraries and to identify their attitudes toward reading itself and library as a space for reading. The study was conducted within the framework of a qualitative study, an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32 children who visited urban public libraries in Seoul during the summer of 2010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with QSR NVivo9. The results show that (1) children seem to consider libraries as reading places, (2) children seem to understand that reading is an activity conducive to their learning, (3) children themselves selected their books for reading, (4) children used browsing and keyword searching to find the books they like to read, (5) children mentioned the importance of "their interests" and "appropriateness" in selecting books, and (6) there were a variety of factors affecting children's book selection: titles, cover images and illustrations, accessibility of books, genres and subject areas, treatment, favorite authors and books, and publishers.

키워드: 어린이, 도서선택, 독서지도, 독서행위
Children, Book Selection Behavior

* 본 연구는 2009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schung@duksung.ac.kr)

논문접수일자: 2011년 1월 19일 최초심사일자: 2011년 1월 19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2월 1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417-437, 2011. [DOI:10.4275/KSLIS.2011.45.1.4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흔히 사용되는 '독서의 생활화'라는 말과 같이, 자발적이며 일상적인 독서는 매우 중요하기에 유년시절부터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요사이에는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독서운동 단체 그리고 심지어 대중매체들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발적이며 일상적인 독서를 강조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독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독서흥미 유발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2006년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독서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관심이 부응하였고 2000년대 이후 증가세에 있는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학교도서관으로 인하여 독서가 어린이 생활에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2002년에 전국적으로 462개관이던 공공도서관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703개관으로 증가하였으며, 어린이도서관은 그 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에 14개관에서 2009년에는 72개관으로 증가하였고 학교도서관은 설치율이 전국적으로 94.5%에 이른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이러한 물리적 여건에 힘입어 실제로 독서하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다는 보고는 긍정적이다. 문화관광체육부(2010)에 따르면 한 학기 동안 한 권이상의 책을 읽은 초중고생들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93.7%에 이르고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들의 독서율은

98%에 이르러 가장 책을 가까이하고 있는 연령집단이었다.

이제는 단순히 물리적 여건 마련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자발적이며 일상적 독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익한 독서 환경 구축과 독서 지도에 있어 좀 더 내실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자는 어린이 독자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가 독서환경 구축과 지도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린이의 자발적이며 일상적인 독서를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놀랍고도 아쉽다. 특히 국내 연구 부족으로 인해 현재 어린이들과 직접 대면하여 봉사하는 사서 및 교사들이 경험적 수준에서 어린이 독자를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헌정보학 영역은 자발적으로 일상적인 독서하는 어린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학문 분야이고 연구 결과가 바로 도서관 및 학교현장의 독서관련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문헌정보학 영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독서를 강조하며 이를 즐기는 어린이 독자를 키워내고자 한다면 이들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를 목표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학문적인 구명은 어린이 독자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제공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인 독서를 위해 책에 접근하고 선택하는 능동적인 행위는 어린

이들에게 독서의 자기결정권을 가지게 하여 독서 동기를 부여 한다(Carol & Lu 2008).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린이는 인지적, 육체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그들이 속한 가정, 학교 등을 통해 주변 어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주변 어른으로부터(주로 교사, 부모 등) 독서의 내용과 방법이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잦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교과학습과 문화습득은 독서가 기본이 되어 이루어지며 그러한 독서는 학교 및 가정으로부터 강조된다. 적극적인 독서교육이 학교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강제여부와는 관련 없이 권장도서목록이나 특정 독후활동 등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일상적인 독서를 하는 어린이들은 도서관이라는 독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도서선택을 하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들의 독서를 위한 공간으로서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도서선택행위를 살펴봄으로써 어린이들의 일상적인 독서를 이해하고자함에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스스로 일상적인 독서를 하는 어린이 독자들의 도서선택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문헌정보학과 독서 관련 논문들이 실리는 주요 학술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DBpia 검색 결과, 관련된 논문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문

헌정보학의 영역에서는 어린이용 목록 또는 목록 검색 행태에 관한 연구(윤정옥 2006; 사공복희 2007)와 어린이 자료선정을 지원하는 보조 도구에 관련된 연구(장지숙 2006)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목록이나 도구가 아닌 어린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들의 독서행위를 밝힌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독서교육 영역에서 어린이의 독서행위에 관련된 연구논문 한 편(진선희 2006)을 찾을 수 있었다.

진선희(2006)는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대도시 거주 515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어린이 독자들의 독서성향을 거시적,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독서를 유익한 활동으로 즐기고 있고 자신들이 읽을 책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은 사실적이거나 환상적인 이야기를 가장 즐겨 읽었으며 학습만화도 중요한 애독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동시와 어린이 잡지는 아직 어린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장르의 책들이 아니었다. 미시적 독서 성향 분석을 통해 어린이들이 텍스트를 예측하고 내적으로 체험하면서 느끼는 감동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교훈이나 의미를 탐색하는 즐거움, 등장인물 분석의 즐거움, 그리고 행복한 결말이 주는 즐거움 등을 밝혀냈다.

진선희(2006)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를 직접 설문조사하여 그들의 독서성향을 밝혀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밝혀진 단편적인 결과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적 고찰과 문헌정보학적 시각에서 도서관을 독서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고찰의 필

요성이 있다.

어린이 도서선택에 관한 국외 연구는 문해교육 영역에서 주로 발견되나 그 연구가 파편적으로 초점과 연구 대상이 다양하다. 그 가운데 초등학생 어린이 도서선택의 기본모델을 제시하는 Reutzler와 Gali(1997)는 어린이들의 도서선택이 4단계의 행동을 반복한다고 한다. 즉, (1) 서가에서 꺼내, (2) 표지를 보고, (3) 판단을 한 후, (4) 선택하거나 다시 꽂아놓거나 하는 행동이다. Timinon(1992)는 교사로서 자신의 학급 어린이들을 일 년 동안 관찰한 결과, 어린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도서를 선택한다고 보고하면서 도서선택 방법은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많은 수의 연구들이(Campbell, Griswold & Smith 1988; Kragler & Nolley 1996; Reutzler & Gali 1997) 도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내용, 난이도, 도서의 외형적 특징, 제목, 작가 등의 기본적 서지정보 등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인들이었다.

문헌정보학 영역에서는 도서선택에 관한 연구의 수가 적어 Pejtersen(1986)과 Reuter(2007)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헌정보학 영역 내에서는 자발적이며 일상적인 독서와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부분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고(Carol & Lu 2008; Guthrie and Davis 2003; Krashen 2004; Trelease 2001) 도서선택 자체를 이해하고자 시도한 문헌정보학의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Reuter 2007).

어린이들을 위한 소설검색시스템 설계를 위해 시도된 Pejtersen(1986)의 연구는 도서선택을 위한 어린이와 사서간의 소통을 분석하여 어린이들의 요구가 특히 도서 접근성과 도서에

대한 감정적인 경험에 집중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7세에서 9세까지의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도서선택행위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시도한 Reuter(2007)는 도서관에서 도서 선택시 어린이들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도서의 외형적인, 내용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면서 도서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도서선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책 내용과 독서경험이었고 저연령 어린이보다 고연령 어린이들이 더욱 의도성을 가지고 도서 선택을 하였으며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더욱 독립적으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국외 연구 역시 그 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도서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서선택에 관련 하여는 Reuter(2007)가 본 연구와 관련성이 가장 있다. 그러나 저연령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과 국내와는 도서관 및 독서 문화가 다를 수 있는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2 '독서'와 '어린이'

본 연구에서는 '독서'와 '어린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독서'는 용어 그대로 풀어서 '책 읽기'라는 뜻이며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즘 어린이들은 학교, 학원, 가정 등을 주요 공간으로 하여 다양한 목적의 책 읽기를 한다. 일반적인 어린이 독서의 두 가지 목적은 학습을 위한 독서와 지적 즐

거음 및 사유를 위한 독서이다. 또한 어린이 독서는 학교, 학원, 부모로부터 학습을 위해 강제되는 것과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 독서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독서라는 용어는 학습적 유익 또는 지적 즐거움과 사유의 목적을 가진 독서이나 강제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일상적인 독서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어린이’는 통상 초등학생의 연령인 만 11세 또는 12세까지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이 되나 합의된 뚜렷한 연령기준은 없다. 공식적으로는 연소자, 미성년자, 소년 등 몇 가지 다른 용어들이 어린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혼용하기도 하지만 어린이라는 표현은 가장 일상적인 표현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라는 개념을 통상적인 이해대로 초등학생 연령대까지로 정의하며 홀로 책을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초등학교 3학년생 이상 6학년생 이하를 연구 참여 대상으로 정하였다.

이 연령대의 어린이는 인지발달상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 의하면 약 7세에서 11세의 어린이들은 ‘구체적 조작기’에 속하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이제는 타인의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으며 이전 시기의 어린이들에 비하여 논리적인 사고를 학습해 나간다고 한다. 이러한 발달은 특성에 따른 물건의 서열화가 가능하게 하고 분류의 유목화 개념을 습득하게 되어 구체적인 물체를 개념으로 범주화하는 능력을 갖추게끔 한다. 즉,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한다.

에릭슨과 프로이드의 발달이론을 보아도 초등학교 시기의 어린이는 사회 문화적으로 필요

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사회 친화적이며 순응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근면성 또는 열등감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기를 겪으며 제시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이 자신감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 본질이 어린이 독자를 이해하려는 탐구적 목적이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일차정보원인 어린이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무엇을’, ‘왜’, ‘어떻게’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연구 환경과 방법론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어떠한 실험적인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실제 환경을 연구 환경으로 선택하였으며 어떠한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연성 있게 설명하고 연구 결과에의 반영을 허락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Guba & Lincoln 1982)을 사용하였다.

3.1 자료수집 장소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의도적인 표본모집방법(Patton 1990, 2001)을 사용하여 가장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소를 의도적으로 선정하였다. 의도적인 표본모집방법은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집방법으로 연구자가 참여자의 기준을 의도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장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연구 조건을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을

자료수집 장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어린이 독자의 도서선택을 위해서는 다양한 도서자원이 존재하고 자유로운 독서 환경이 필요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도서관은 아주 적합한 독서환경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미리 선정한 두 곳의 도서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인 A도서관과 서울 시내 중산층이 밀집한 지역의 한 공공도서관인 B도서관의 어린이실이다. 이 두 곳을 선정한 이유는 독서를 즐기는 어린이들을 발견할 확률이 다른 도서관들 보다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A 도서관은 장서의 수와 규모에 있어서 국내 최대로서 어린이들을 위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일부러 A 도서관에 찾아와서 독서를 한다는 의미는 가정 내에서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본인이 독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B 도서관은 서울에서 교육열이 높고 경제적으로 중상위층 가정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독서를 하기 위해 어린이실에 방문하는 어린이들과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이러한 연구자의 판단과 추측은 두 곳에 근무하는 사서들과 짧은 면담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서관측의 협조를 구하여 자료수집을 위한 제반 여건에 대한 지원(예를 들면, 이용자 대상 인터뷰시행 허용, 인터뷰 공간제공, 연구참여자 추천 등)을 받아 자료 수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3.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해 2010년 7월 27일, 28일, 29일, 30일, 그리고 8월 2일에 총 32명의 어린이들과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자주 오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도적인 표본모집방법(Patton 1990, 2001)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풍부하고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 집단은 독서를 자발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어린이, 의사소통이 활발한 어린이, 그리고 혼자 독서를 할 수 있는 어린이므로 이들이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고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였다.

다음은 인터뷰에 응한 어린이들에 대한 정보이다(표 1, 표 2, 표 3 참조).

〈표 1〉 성별 분포

성별	명 수
남	15
여	17
총	32

〈표 2〉 연령별 분포

연령	명 수
10살	9
11살	12
12살	6
13살	5
총	32

〈표 3〉 도서관별 분포

도서관명	명 수
A 도서관	27 명
B 도서관	5 명
총	32명

본 연구자는 연구자의 기준을 설명한 후 담당 사서 추천을 받아 참여 어린이들을 선정하기도 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연구 참여 어린이들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두 경우 모두 연구자는 어린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과 어린이의 연구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하였고 어린이와 보호자가 모두 인터뷰를 수락한 경우에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가 어린이모집과 인터뷰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뷰시 어린이의 시야에서 부모(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먼저 구한 후에 인터뷰를 요청하면 어린이 자신이 안심을 하고 인터뷰에 임하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초등학생 시기에는 부모에 정서적으로 의존을 하는 시기이므로 부모가 동의하여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그들의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둘째, 인터뷰시 어린이들에게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답변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 주었다. 이는 질문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로서 인터뷰 진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어린이들과 부모(또는 보호자)들은 인터뷰 요청에 대부분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로 방학 중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어가 자유스럽지 못한 어린이 두 명과 어머니는 동의를 하였으나 부끄럽다고 인터뷰를 거절한 어린이 한 명 등 세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구 참여를 승낙하였다.

사실, 인터뷰장소인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

는 사서들은 어린이 인터뷰 요청시 부모(또는 보호자)의 거절을 많이 할 것이라고 추측하며 연구자에게 미리 각오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연구 참여 어린이 모집은 아주 원활히 이루어졌다. 심지어 일부 어린이들은 본 연구자가 인터뷰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자에게 직접 다가와 본인들도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는 등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는 사실 A 도서관과 B 도서관 어린이실 담당자의 협조가 크게 작용하였다. 도서관 이용자들로서 어린이와 부모(또는 보호자)들은 연구자와 담당사서와의 지속적인 소통 모습을 관찰하였고 또한 열람실 밖에 인터뷰를 위해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자료수집이 진행되는 모습에서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연구자의 연락처와 서명이 들어간 개인정보 보호약속과 연구요약자료는 인터뷰 요청하는 연구자에 대한 신뢰감을 주었으리라 판단된다. 어린이와 부모(또는 보호자)에게 인터뷰 요청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보호자로 하여금 사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 참여 어린이와 그들의 보호자에게 약속한 대로 어린이들의 실명을 쓰지 않고 어린이 개개인에게 1번, 2번, 3번, 등 부여된 번호를 사용하였으며 문장 속에서 언급할 경우 번호 뒤에 '군' 또는 '양'의 표현을 주어 성별을 표시하였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는 윤리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원활하게 자료수집이 진행되도록 연구자들은 세심하게 장치를 개발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어린이 대상 자료 수집을 계획하는 연구자들에게 본 연

구자의 경험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3.3 자료수집 방법과 분석

본 연구자는 자료 수집기간과 수집방법을 결합함에 있어 역시 일정 부분의 의도성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0년 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인 7월과 8월을 선택하여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습을 잠시 멈추고 자연스럽게 독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의도하였다. 특히, 도서관에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질 계획이었기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도서관에 방문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의 선택은 꼭 필요하였다.

자료수집방법으로서 인터뷰 방법이 사용되었다. 통상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자료수집방법의 하나가 인터뷰방법이나 신뢰성을 위해 관찰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아동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연구 참여 어린이들만의 행위를 관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인터뷰 중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묘사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인터뷰가이드를 준비하고 인터뷰 상황에 맞추어 질문을 수정/추가/삭제하도록 허용하는 준구조적인(Semi-Structured) 인터뷰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32개의 인터뷰는 녹취되었으며 Microsoft WOR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사되었다. 인터뷰 참여자에 따라 구분된 32개의 파일은 각각 한글 11폰트를 기준으로 총 1,500여 페이지에 달하였고 각각의 파일은 RTF포맷으로 변환되어 QSR NVivo 9프로그램에 저장되어 분석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계속비교방법(Glaser & Strauss 1967)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계속비교방법의 주요 지적 활동은 '비교'와 '대조'이다 (Tesch 1990). 연구의 목적에 의거하여 각각의 인터뷰자료 속의 문맥을 분석하여 범주를 만들어내고, 범주의 내용을 정의하며, 문맥을 범주에 지정하며, 그렇게 구성된 각각의 범주를 요약하고 부정적 근거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비교와 대조 활동이다. 이를 통해, 개념적인 유사성을 구별해내고, 각각의 범주구별을 정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인터뷰 자료는 Boeije(2002)가 제시한 다섯 가지의 '비교' 유형 중 한 가지인 '동일 집단소속 사람들의 유사경험에 관한 인터뷰 비교'에 해당하므로 이 유형 자료 분석의 목적인 개념 분석을 통하여 범주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3.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모든 질적 연구가 그렇듯이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대신, 연구결과

1) Boeije(2002)가 제시한 질적 자료 분석의 다섯 가지 '비교' 유형은 '한 개의 인터뷰 속 내용 비교', '동일 집단소속 사람들의 유사경험에 관한 인터뷰 비교',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집단소속 사람들의 인터뷰 비교', '짜을 이루는 관계(예, 모자, 교사와 학생, 남편과 아내 등)에 있는 두 사람의 인터뷰 비교', '유사경험을 한 커플들의 인터뷰 비교'이며, 그는 각 유형에 따른 질적 자료 비교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가 다른 유사한 환경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전이성을 강조한다.

둘째, 자료 수집을 위해 두 곳의 도서관에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도서관 이외 장소에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제한점이다. 그러나 인터뷰 시 간접적으로 도서관 외의 장소의 독서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이에 관한 자료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자료 수집 방법에서 인터뷰 자료만을 이용한 것은 제한점이다. 관찰법을 병행하고자 하였지만 이동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오고 가는 모든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연구 참여 동의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넷째, 도서관을 방문한 어린이들을 연구 참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독서에 관심이 있고 독서하는 어린이들이었다. 특히 A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방문하기에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아 보호자가 어린이를 데리고 방문해야할 정도로 독서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가정의 어린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독서를 즐기지 않거나 아예 별로 독서를 하지 않는 어린이들은 연구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4. 연구 결과

자료 분석 결과 다음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어린이들은 독서하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독서를 유일한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셋째, 어린이들은 읽을 책을 스스로 선택하였다. 넷째, 도서 선택을 위한 접근 방식으로 브라우저와 목록이용이 있었다. 다섯째, 어린이들은 도서 선택 시

‘재미있는’ 책과 자신들에게 ‘맞는’ 책을 특히 강조하였다. 여섯째, 선택을 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서명, 책표지 디자인과 삽화, 도서의 접근성, 선택되는 도서의 장르/주제 분야, 표현 방식,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 출판사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4.1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인식

4.1.1 독서공간으로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

연구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은 도서관이 책과 다양한 자료의 공간 그리고 독서하는 공간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규모가 큰 A 도서관을 이용한 어린이들은 방학 중 도서관 이용이 꽤 익숙한 듯 책을 읽다가 쉬고 싶으면 영화를 감상하기도 하고 만화책을 보기도 하면서 도서관 자료를 지적 욕구에 따라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집에 있는 것보다 도서관에 오면 책도 많고 책을 읽는 분위기가 있어서 독서를 하게 된다는 답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도서관에서의 독서 경험은 부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 도서관과 B 도서관에서 인터뷰한 어린이들 대부분은 부모 또는 보호자 안내로 방문하였고 독서를 하고 있었다. 또한 3명(18번, 22번, 26번)을 제외하고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반하여 도서관을 방문하여 근거리에서 같이 독서 하거나 자녀의 소재를 파악하고 자신들의 일에 열중한 모습을 보였다.

어린이들은 도서관이 소장하는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책들이 있어 서점이나 집보다 책 읽기가 더욱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도서관에

서 만난 연구 참여 어린이들은 서점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일부러 가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정말 원하는 책이 아니라면 사지 않고 도서관에서 읽거나 빌린다고 대답하였다. “도서관이 더 좋아요”(16번)라고 말하거나 “우리 집은 원하는 책을 다 살 수 없으니까”(24번)라고 하여 도서관에서 주로 읽을 책을 접한다고 하였다. 또한 서점에는 신간이 많이 있으나 비닐에 싸여져서 읽지 못하게 막고 있기도 있고 도서관과 비교하여 다양한 책들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대답하여 도서관의 도서 접근성과 유익한 독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어린이들에게 서점은 학교 교과관련 문제집을 구매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집과 도서관을 비교하여 도서관이 물리적인 환경도 좋고 다양한 책들이 있어 즐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예를 들어, 16번 양은 집에는 책이 많이 없어서 있는 책만 자주 반복 독서하게 되어 독서의 재미가 덜하다고 하면서 다양한 책들이 있는 A 도서관에 오면 즐겁게 독서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22번 군은 도서관이 여름에는 냉방이 잘 되어 쾌적한 느낌이 있고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어 게을러지지 않기 때문에 책도 별로 없고 더운 집에 있기보다는 도서관에 매일 온다고 대답하였다. 어머니가 독서지도 교사이며 가정에서 독서지도 모임을 가지고 있는 12번 군의 경우도 22번 군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답을 하였다. 집에 있는 방 하나에 책이 가득 있어 아직 읽지도 못한 책이 많이 있으나 도서관이 좋은 이유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또 만화책을 포함한 다양한 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그 외,

집에서는 제한된 수의 책들만 있기에 이러한 책들을 반복해서 읽는 경우가 많다고 대답들이 많았다(9명). 또한 영어책들은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는 점은 좋다고 하였다(3명).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책들을 모두 “마음대로 볼 수 있다”(32번)고 생각해 도서관에서의 독서를 매우 자유로운 독서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방학 중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활용하여 도서 및 도서 관련 방학 숙제를 한다는 5명의 답변도 있었다.

어린이들은 도서관에 대한 불만 사항도 언급하였다. A 도서관이 관외대출을 하지 않는 점에 불만이었고 각 실마다 책을 가지고 나갈 때는 관내 대출을 해야 해서 불편하다고 언급하였다(2명). 그리고 규모가 일반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보다 커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사실과 청소년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만화책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답변들이 있었다. 소음 등의 도서관 예절에 대해 지적하는 어린이들도 있어(1번 등 5명) 어린이들 역시 조용한 분위기에서 독서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1.2 독서에 대한 인식

어린이들은 독서가 즐겁고 유익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도서관에 와서 그러한 유익한 독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독서하는 게 왜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답한 어린이들의 표현 중 몇 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을 쌓을 수 있어 좋아요(1번)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가 책에는 있어요(4번)
 교훈을 얻어요(5번)
 흥미로워요(15번)
 막 재미있어요(29번)

4.2 도서 선택 행위

4.2.1 독서를 위한 도서선택의 주체: “제가 돌아다니면서 골라요”

본 연구에 참여한 서른 두 명의 모든 어린이들은 읽을 책을 본인들이 고른다고 하였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골라요”(3번 군), “제가 골라 읽는 편이에요”(2번 양), “제가 원하는 것만 읽어요”(16번 양)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에게 도서 선택권이 있음을 단호하게 언급하였다. 다만, 자신들의 선택은 교사나 부모들이 원하는 책들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들에게 최종적인 선택권에 있음을 암시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권장도서목록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책들이 있으나 강제적으로 읽지는 않는다고 답하면서 그 가운데 읽을 책은 자신들이 선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두 명의 어린이 경우, 도서관이 다양한 책들을 가지고 있어 고를 책이 훨씬 많다고 하였으며 학교에서 배부하는 권장도서목록에서는 읽고 싶은 책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까지 답변하여 권장도서목록은 지루한 책들의 모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18번 군은 “그런 건 안 보고 제가 보고 싶은 책만 봐요”라고 하면서 권장도서목록상의 책들은 교과서와 함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였다. 그러나 권장도서목록 상의 책들만을 모아서 배가 된 코너가 따로 설치가 되어있는 학교도서관에

가서 이를 훑어보고 읽고 싶은 책들을 선택해 본다고 대답한 경우도 7명이 있었다.

부모님이 권하는 책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어린이들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주제 분야의 책들이거나(2번, 5번, 18번) 시간이 없을 때 책을 고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고(13번) 답변하였다. 5번 양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골라 읽는 것을 즐기지만 싫어하는 주제인 역사관련 책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른 책을 읽는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고르는 책은 그나마 읽을 수 있다고 하여 어머니의 도서선택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가 대리로 읽을 책을 대출하여 자녀들에게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강제성은 없으며 자신이 재미가 없으면 읽지 않는다고 하였다. 4번 양의 경우, 영어동화책을 주로 엄마가 빌려주시는데 “엄마가 빌려주시는 책들도 재미있는 것만 읽어요”라고 하며 자신이 최종적으로 독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연구가 도서관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2명의 연구 참여 어린이들 중 어린이실 사서에게 읽을 책을 추천 받는다는 어린이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는 사서들이 어린이실에 방문하는 어린이 개개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 해석된다.

4.2.2 도서 선택의 기준

어린이들은 어떤 책을 고르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여 답하였다.

- 재미있는 책(18명)
- 나에게 맞는 책(7명)
- 느낌이 좋은 책(3명)
- 알아서 손이 먼저 가는 책(1명)
-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책(1명)
- 교훈을 줄 수 있는 책(1명)

상기 표현들은 어린이 자신들의 주관적 기준이겠으나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재미있는 책”을 고른다는 답변은 압도적으로 많았다. 어린이들이 의미하는 ‘재미’는 책의 주제, 형식, 외형 등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느끼는 것이었다. “느낌이 좋은” 책과 “알아서 손이 가는” 책들에 대한 설명도 대체로 “재미있는”과 마찬가지로 책의 전체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성된 표현들이었다.

특히 “재미있는” 책을 원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본 연구자는 어린이들이 책을 고를 때 나름대로 독서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흥미롭게 6명의 어린이들이 권장도서라든가 지식 정보책 등은 “좋은 책”이라고 언급하며 “재미있는” 책과는 별도로 구분짓고 있었다. 예를 들면, “좋은 책이 제겐 꼭 다 재미있지는 않아요”(31번)라고 하거나 “지식이 많은 담긴 좋은 책은요, 좀 지루해요”(6번)라고 좋은 책은 재미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기도 하였으며 또 “좋은 책 같은 거는 ... 막 무슨 지식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고 읽어 봤자 제가 잘 몰라요(30번)”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16번 양은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그런 건 좋은 책이 아니라고 하시고 과학책 뭐 이런 책들이 좋

다”고 하지만 책을 읽는 자신이 재미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좋은 책만 읽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어린이들은 고르는 책들이 “나에게 맞는 책” 일지의 여부에 대해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이들이 언급한 “나에게 맞는 책”은 관심 있는 도서가 내가 이해할 수준의 책인지 여부이다. 사실, 본 연구자는 책의 “내용”이 어린이 독자를 대상으로 한 책인지 여부의 의미라고 추측하였으나 어린이들은 모두 책 내용, 단어, 문장의 난이도를 의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3번 군은 “나에게 맞는지”가 책을 고를 때 책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책을 훑어보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인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인지 여부를 파악한다고 답변하였다.

32번 군의 경우는 좋아하는 작가가 ‘조지 오웰’과 ‘헤르만 헤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이(10세)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독서를 하고 인터뷰 역시 다른 어린이들과는 차별성이 느껴질 정도로 자기 표현력이 좋은 어린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고를 때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지 여부가 늘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32번 군은 본문 내용을 훑어보거나 작가의 말등을 통해 본문에 있는 단어들에 자신에게 적절한가를 파악한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어린이들이 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에서 책을 고를 때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려를 늘 안고 책을 고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재미있는 책”과 “나에게 맞는 책”이란 어린이들에게 꽤 중요한 기준이어서 반대로 “나에게 맞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책은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싫다고 이야기하기도 하

였다(19번, 30번).

4.2.3 도서 선택을 위한 접근방식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읽을 책을 찾는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법은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서가 브라우즈이다. 특히, 서가브라우즈는 뚜렷한 목적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원하는 책의 주제, 유형, 외형 등이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어린이들은 특히 A 도서관이 책이 많아 좋다는 답변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분류체계를 잘 알고 있거나 구석구석 장소를 잘 알고 책을 찾지는 않았다. “도서관은 책이 마구 섞여 있어서 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8번)는 답변도 있었고, 좋아하는 내용의 책들이 많이 있는 서가에 대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22번)을 보였다. 서가 브라우즈를 이용하는 몇몇 어린이들의 표현은 다음과 같았다.

제가 모르는 책이 많으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골라요(1번)
 둘러보면서(4번)
 번호는 잘 모르구요, 그냥 다니면서 골라요(7번)
 막 다니면서(13번)

이렇게 뚜렷한 목적 없이 접근하여 발견한 책들은 일단 목차, 작가의 말, 뒤표지에 발췌문 등을 훑어보고 독서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13번 등 8명).

반면에 도서관에 자주 방문하여 친숙함을 가지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독서를 즐기는 어린이들은 목적을 가지고 서가 브라우즈를 하였다.

이 어린이들은 좋아하는 책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하나 이상 있었고 도서관에 오자마자 늘 먼저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4번 양과 30번 양은 도서관에 방문할 때는 먼저 좋아하는 영어책이 모여 있는 코너를 가서 새로운 책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30번 양은 외국작가의 소설을 좋아해서 늘 확인을 하러 서가를 훑어본다고 하였다. 새로운 책이 없거나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는 실망을 한다고 답하였다. 31번 군은 학교 도서관에 매일 가기 때문에 가면 늘 과학책 코너를 확인하여 새로운 책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29번 양은 도서관에 올 때마다 늘 신간코너를 확인하여 새로운 책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도서관 목록을 사용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주로 책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 목록을 검색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억해 놓았던 책을 찾을 때(3번 등 4명), 이미 알고 있는 책을 찾을 때(18번 등 4명), 문학상 수상 목록이나 독서논술학원 도서목록 등 읽어야 할 도서 목록이 주어진 경우(8번 등 3명) 등이 이미 알고 있는 책을 검색하기 위해 도서목록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서 봐두었던 책을 기억하였다가 목록검색을 해보기도 하는 경우(3번 등 3명) 등이 있었다. 목록을 이용할 때는 지배적으로 제목을 이용하여 찾는 경우가 많았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모두 온라인 도서관 목록은 알고 있는 책을 찾을 때 이용하지 그냥 읽고 싶은 책을 찾아보려고 검색해보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소수이지만(32번 등 3명) 좋아하는 작가 이름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어린인들이 아직 어려서 딱딱한 온라인 도서관 목록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목록사용이 제한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8번 군은 도서관에 독서하러 자주 온다고 하면서도 아직 한 번도 도서관 목록을 검색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흥미로운 목록 사용의 예도 발견 되었다. 18번 군은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방법으로 서가 브라우저와 함께 목록 브라우저도 즐긴다고 말하며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단어의 첫 글자(예를 들어, “은”, “자”)를 무작정 목록의 검색창에 입력하여 어떠한 책 제목들이 보이는지 살펴본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유희처럼 이루어지는 목록 브라우저였고 서지 정보를 이용한 의도적인 브라우저는 아니었다.

4.3 도서 선택의 영향 요인

다음은 읽을 책을 고를 때 어린인들이 살펴보는 요소들로서 서명, 책표지 디자인과 삽화, 책의 두께, 책의 장르와 주제 분야, 책의 표현방식, 접근성, 작가와 작품, 출판사가 발견되었다. 어린인들은 이러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4.3.1 서명

어린인들은 책을 고를 때 제목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24명). 원하는 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뚜렷이 없을 경우,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서가 브라우저를 통해 책을 발견하는데 많은 수의 어린인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요소는 책의 제목이었다. 다음은 어린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목들의 특징이다.

제목은 보고 흥미를 느낄 때요, 저는 요정이나 공주에 관련된 제목에 흥미를 느껴요(4번)

동물[관심있는 주제]에 관련된 제목이면요(10번)

제목이 너무 길지 않고 짧은 책이요, 제목이 긴 책은 어려울 것 같아요(11번)

막 돌아다니다가 제목을 보고 재미있겠다고 생각하는 거를 꺼내 봐요(16번)

먼저 제목을 보는데 목차라든지 표지도 같이 보고 결정해요, 그런데 제목은 짧지만 확 와 닿는 게 좋아요(17번)

딱 제목을 봤을 때 짧고 좀 쉬워 보이는거요(20번)

제목이 뭔가 특별해야죠, 예를 들면, 그냥 '세계여행'하면 너무 평범하잖아요, '80일간의 세계일주'와 같이 독특하면 눈길이 가고 읽고 싶어져요.(18번)

'눈동자의 집'이나 '수상한 제재소'와 같이 뭔가 애매모호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의 책은 읽고 싶어져요(32번)

4.3.2 책표지 디자인과 삽화

도서 선택을 위해 책표지 디자인과 삽화 역시 어린인들에게 중요한 요소였다(7명). 책표지와 그림에 관심이 많은 어린인들은 책의 주제 뿐 아니라 삽화 스타일에도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어린인들이 언급하였던 책표지와 삽화의 특징이다.

표지나 그림에 관심이 많아요, 따라 그리는 걸 좋아해요(8번)

제목에 상관없이요, 그림을 일단 보고 재미있겠다

싶으면 보고요, 아, 전 동물 그림이 있는게 좋아요. 동물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 책이 두껍다면 작가의 말 같은 곳을 읽으면서 써머리를 찾아보고 읽을지 말지를 정해요(13번)

책표지를 보면 재미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어요 (30번)

그림이 많은 게 좋아요. 좀 독특하고(15번)

그림이 많은 게 좋고 왜 테두리가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전 그런게 좋아요(26번)

반면에 책표지나 삽화는 도서 선택에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한 어린이들도 6명이나 있었다. 그 6명의 어린이 중 한 명이었던 29번 양은 매일 도서관에 오며 독서 때문인지 자신의 국어교과 점수는 그리 노력하지 않아도 100점을 쉽게 받는다며 자랑스러워하였다. 29번 양과 그 외 5명의 어린이들에게는 삽화의 존재 여부와 책표지 디자인 등 책의 외형은 책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4.3.3 책의 두께

책표지나 삽화가 도서 선택에 있어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던 6명의 어린이들은 모두 소설이나 문학 작품을 좋아한다고 답하였고 책은 두꺼울수록 좋다는 답변을 하였다. 아마도 호흡이 긴 책들을 읽고 재미를 느낀 경험이 많아 길게 지속되는 이야기를 선호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30번 양은 “저는 얇은 책보다 두꺼운 책을 좋아해서 제목이랑 책의 두께 먼저 보고 꺼내서 안의 내용을 보고 읽어요”라고 하여 두꺼운 책을 아예 도서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3번 군 역시 “짧은 책보다는 긴 책

이 이야기가 기니까 더 재미나요”라고 두꺼운 책에 대한 선호도를 밝혔다.

그 외 많은 어린이들은 책의 두께에 관하여 별 의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예를 들어, 16번 양은 “책이 두껍거나 얇은 것에 관계없이 재미나기만 하면 되요”라고 말하여 책의 두께가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32번 양 등 7명의 어린이들도 두께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두꺼운 책은 싫다는 답변도 있었다(11번).

4.3.4 책의 장르 또는 주제

어린이들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하였다. 좋아하는 분야의 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는 거침없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소개하였다. 다음은 어린이들이 각자 언급한 분야를 어린이들이 사용한 분야 또는 장르 용어 그대로 나열한 것이다. 참고로 한 어린이가 복수의 분야 또는 장르를 언급하기도 하였다(표 4 참조).

4.3.5 책의 표현 방식

어린이들은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쓰인 책을 선호하여 “이야기”형식의 책을 사실 묘사 위주의 책보다 선호하였다. 무려 22명의 어린이들이 이러한 답변을 하였다. “지루하고 딱딱한 설명이 많은” 책은 읽고 싶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4명의 어린이들은 ‘안네의 일기’나 ‘윙피 카드’와 같은 일기 형식의 글들이 친근감이 있고 좋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4.3.6 책의 접근성

어린이들에게 책의 접근성은 독서를 하도록

〈표 4〉 어린이들의 선호 분야/장르

선호 순위	분야 또는 장르	언급한 분야에 대한 어린이들의 설명	답변한 어린이 수
1	모험이야기	“아이들이 모험을 하는 이야기”	19
2	과학책	“과학이나 원리에 관련된 것을 알려주는 책”	10
3	위인전	“본받을만한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	7
4	학교, 친구, 우정 이야기	“나와 같은 생활을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7
5	소설, 문학	“실제같이 만든 이야기”/ “소설이나 문학 부분에 꽂혀 있는 책들”/ “세계명작문학”	6
6	추리이야기	“셜록 홈즈이야기”	6
7	곤충이야기	“곤충에 대한 설명이 있는 이야기”	4
8	환상이야기 (요정, 판타지 소설포함)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들고 상상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5
9	창작동화	“동화책”/ “창작동화라고 쓰여 있는 이야기책”	3
10	공포소설	“무서운 이야기”/ “유령이야기”	2
11	동물이야기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	2
12	역사책	“역사적 배경이 있는 이야기”/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	2
13	옛이야기	“전래동화”	2
14	재미있는 개구쟁이 이야기	“장난이 많은 친구들이 나오는 이야기”	2
15	작가가 주인공인 소설	---	1
16	정치풍자소설	“조지오웰의 동물농장과 같은 소설”	1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고 어린이들도 접근성에 따라 책을 읽는다고 인정을 하였다. 도서관에 오는 이유도 다양한 많은 책들을 접하기 위해 서였으며 초등학교도서관의 경우, 권장도서를 모아놓은 서가가 있어서 권장도서목록 상의 책을 찾을 때는 바로 그곳으로 간다고 답하기도 하였다(24번 등 9명). 또한 전시된 책들을 주로 본다는 7번 양도 있었다. 또한 어린이들 각자 가정에 있는 책들은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고 하였으며(4명) 반복 독서의 이유는 “책이 별로 없어서”라고 하였다(16번).

12번 군과 15번 양은 다른 학생들이 이미 보고 책상 위에 놓아둔 책을 본다고 하는 흥미로운 답변을 각각 하였다. 12번 양은 “누군가 보고 의자 위에 놓고 간 책”을 보았는데 재미있었

다고 답하였고, 15번 군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를 슬쩍슬쩍 보면서 재미있겠다 싶으면 나중에 봐요”라고 하였다.

4.3.7 작가와 작품

어린이들은 좋아하는 작가 또는 유명 작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1번 양은 외국 작가인 재클린 윌슨이 책을 너무 재미나게 써서 좋다고 하면서 재클린 윌슨 책은 모두 다 본다고 고백하였다. 11번 군과 12번 군도 유명 작가들이라면 믿을 수 있으므로 유명작가들 책을 찾아서 보기도 한다고하였고, 31번 군은 헤르만 헤세와 조지 오웰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면서 이들 작가의 책들은 찾아보고 또 영문 원서까지 찾아 읽는다고 하였다. 어린이들

은 시리즈 중에 한 권을 접하면 나머지 책들도 읽는다고 하였다. 영어소설책인 매직트리하우스 시리즈를 모두 보고 있다는 29번 양과 한 번 접한 과학책 시리즈가 너무 재미나서 읽고 있다는 16번 양도 이러한 경우이다.

이 외에도 도서관에서 접하게 된 어린이 잡지와 부모가 추천해 주어 알게 되었다는 뉴베리 문학상 수상작을 언급하였다.

4.3.8 출판사

두 명의 어린이가 특정 출판사를 언급하며 그곳에서 출판된 책들을 좋아한다고 말하여 흥미로웠다. 12번 군은 “괜찮은 출판사인 비룡소와 교원”이 자신과 잘 맞는 책들을 출판한다고 언급하였으며 7번 양은 비룡소에서 출판된 책을 좋아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30명의 어린이들은 도서 선택에 있어서 한 요소로서의 출판사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다.

5. 결론 및 토론

본 연구는 탐구적 성격의 연구로서 어린이 독자를 이해하고자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과 함께 그들의 도서선택행위를 밝혀서 어린이 독자에 대한 이해의 물꼬를 텃다고 생각한다. 두 곳의 도서관에서 초등학교 재학 중인 10세부터 13세까지 32명의 어린이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가장 낮은 레벨의 연구 결과가 앞서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되었고 본 절에서는 그 결과들이 종합된 주요 주제(Miles & Huberman 1984)들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어린이들은 독서 공간으로서 도서관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린이들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고 독서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독서 역시 유익한 여가 활동이라는 점 또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어린이들은 개인적이며 능동적인 독서 활동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진순희(2007)가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도 어린이들은 일상적인 독서를 위한 자신들의 도서선택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권하는 책이나 여타 권장도서목록상의 도서들도 고려는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선택권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어린이 본인들이 생소하거나 즐기지 않는 주제 분야의 도서에 관하여는 주변인물의(예, 부모) 추천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어린이들의 도서선택이 도서관 내에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서의 역할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는 아쉽다.

셋째, 어린이들에게는 서가 브라우즈가 도서 선택을 위한 지배적인 방법이였다. 특징은 무계획적이며 의도성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며 독서를 하기 위해 도서를 선택할 때 특정 도서를 염두에 두지 않고 특별한 목적 없이 마음에 드는 도서를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Reuter(2007)의 발견이 국내 어린이들에게도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도서관 방문이 일상이고 도서관 내부가 아주 친숙한 어린이들은 즐겨 읽는 도서가 많이 꽂혀있는 서가를 주로 브라우즈하면서 계획성이 있는 브라우즈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도서관 목록

은 정확하게 제목을 알 경우에만 이용되었다는 결과 역시 어린이들이 도서선택을 위한 도구로 도서관 목록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일상적인 독서를 위한 도서선택에 있어 어린이들은 주어지는 도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즐거움을 위해 선택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어린이들에게 도서 선택시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인 “재미있는” 책과 어린이 자신들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맞는” 책은 어린이들이 독서를 즐기고 싶어 하며 자신들이 고르는 책들을 과연 자신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을 고를 때마다 우려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또한 좋은 책은 재미가 없는 편이라고 여기면서 꼭 좋은 책만을 읽으려 하지 않는 것은 일상적 독서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이었다.

다섯째, 도서 선택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명, 책표지 디자인과 삽화, 책의 두께, 책의 표현방식, 책의 장르와 주제 분야, 책의 접근성,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 출판사 등이 발견되었고 이는 앞서 국외 선행연구(Campbell, Griswold & Smith 1988; Kragler & Nolley 1996; Reutzel & Gali 1997)에서 발견된 요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도서관 현장에 다음의 시사점을 준다.

첫째, 어린이들의 도서선택에 있어 사서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서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이며 밀착된 어린이서비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Pjetersen(1986)연구의 전제가 되었던 도서 선

택을 위한 사서와 어린이간의 소통이 본 연구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도서선택을 지원하는 사서들의 역량강화와 보다 적극적인 태도의 필요성이 그대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도서 선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브라우즈와 검색 도구들에 대한 이용자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도서선택 방법에 대한 교육은 자발적이며 일상적인 독서를 장려하는 일이 될 것이다.

셋째, 목록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어린이들이 적용하는 기준이 반영된 목록이 구축되어질 필요가 있다. 분류체계와 번호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용어들을 이용하여(예를 들어, 재미, 느낌, 그리고 단어 수준별 책들에 대한 안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주제 분류 용어들(예를 들어, 역사, 경제, 과학, 곤충, 동물, 모험, 추리, 학교생활, 친구, 우정 등) 사용하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목록을 이용하여 서지사항을 알고 있는 책들뿐만 아니라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도서 선택시 고려하는 요소들인 책 제목, 책표지 디자인과 삽화, 책의 두께, 책의 표현방식, 책의 장르와 주제 분야, 책의 접근성,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 출판사 등은 도서관에서 도서관 목록구축시 접근점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부가적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들을 직접인터뷰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어린이대상 인터뷰시 어린이들이 능동적으로 인터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발견하였다. 어린이 독서 관련 연구에 있어 어린이들로부터 일

차적인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 연구는 어린이를 대신할 수 있는 주변인물(예를 들어, 사서, 교사, 부모, 보호자 등)로부터 이차적인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 연구보다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 어린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 수집을 위해 새로운 방법론적 전략을 개발하고 연구자들 간에 이를 공유하여 방법론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후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가 자료 분석 중에 의문을 가졌던 한 가지는 독서 습관과 경험에 따른 도서선택의 차이이다. 비슷한 연령대 어린이들이 서로 다른 도서를 선택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독서취향과는 별도로 독서습관과 독서경험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본 연구 참여 어린이들 중에 주로 쪽수가 많은 문학류를 좋아하며 매일 도서관에 와서 독서하며 즐기는 어린이들은 모두 책이 두껍고 글이 많으며 호흡이 긴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도서관에 와서 만화책을 비롯한

영화 등을 감상하는 것을 즐긴다는 몇몇 어린이들은 책의 겉모습이 그들의 도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후속 연구에서는 독서 습관과 독서 경험에 따라 어린이 독자들을 진단하고 이들을 비교분석을 하여 도서선택이 이러한 습관과 경험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어린이들의 도서선택에 관하여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감사의 글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협조를 해 주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과 서울 시내 B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담당 사서께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장소 제공 요청과 참여자 모집에 동의해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1] 문화체육관광부. 2010.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2] 사공복희. 2007.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온라인 목록 탐색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1-29.
- [3] 윤정옥. 2006.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어린이용 OPAC 디스플레이의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317-343.
- [4] 진선희. 2006. 독서 성향면에서 본 어린이 독자. 『독서연구』, 16: 113-158.
- [5] 장지숙. 2006. 뉴베리수상작 주제분석을 통한 어린이 독서 자료선정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1): 63-79.

- [6] 한국도서관협회. 2010.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7] Boeije, H. 2002. "A purposeful approach to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in the analysis of qualitative interviews." *Quantity & Quality*, 36: 391-409.
- [8] Campbell, K. C., Griswold, D. L., & Smith, F. H. 1988. "Effects of tradebook covers(hardback or paperback) on individualized reading choices of elementary-age children." *Reading Improvement*, 25: 166-178.
- [9] Guthrie, J. T. & Davis, M. H. 2003. "Motivating struggling readers in middle school through engagement model of classroom practice." *Reading & Writing Quarterly*, 19: 59-85.
- [10] Gordon, C. A. & Lu, Ya-Ling. 2008. "I hate to read-or do I?: Low achievers and their reading." *School Library Media Research*, 11.
- [11] Guba, E. G. & Lincoln, Y. S. 1982.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bases of naturalistic inquiry." *ECTJ*, 30(4): 233-252.
- [12] Kragler, S. & Nolley, C. 1996. "Student choices: Book selection strategies of fourth graders." *Reading Horizons*, 36(4): 354-365.
- [13] Krashen, S. D. 2004. *The Power of Reading: Insights from the Research*. En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Inc.
- [14] Miles, M. B. & Huberman,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Thousand Oaks, CA: Sage.
- [15] Pejtersen, A. M. 1986. *Design and Test of a Database for Fiction Based on an Analysis of Children's Search Behaviour*. Quoted in P. Ingwersen, L. Kajberg, & A. M. Pejtersen, eds. *Information Technology and Use: Towards a Unified View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125-146. London: Taylor Graham.
- [16] Patton, M.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17] Patton, M. 2001.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18] Reuter, K. 2007. *Children Selecting Books in a Library: Extending Models of Information Behavior to a Recreational Setting*. Ph.D. diss., College of Information Studies, University of Maryland.
- [19] Reutzell, D. R. & Gali, K. 1997. "The art of children's book selection: A labyrinth unexplored." *Reading Psychology*, 18: 131-171.
- [20] Tesch, R. 1990. *Qualitative Research: Analysis Types and Software Tools*. New York: Falmer.
- [21] Timion, C. S. 1992. *Children's Book Selection Strategies*. Quoted in J. W. Irwin & M. A. Doyle, eds. *Reading/Writing Connections: Learning from Research*, 204-222.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22] Trelease, J. 2001. *The Read-aloud Handbook*. 5th ed. Penguin Book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Annual Report on Reading Promotion*.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2] Sakong, Bok-Hee. 2007. "A study on searching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3): 1-29.
- [3] Yoon, Cheong-Ok. 2006. "An analysis of children's OPAC displays in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2): 317-343.
- [4] Jin, Sun-hee. 2006. "Children readers in terms of reading propensity."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6: 113-158.
- [5] Jang, Ji-Sug. 2006. "A study on selection efficiency scheme in children's books through subject analysis of the Newbery medal winner's book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1): 63-79.
- [6]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Korea Library Yearbook*.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